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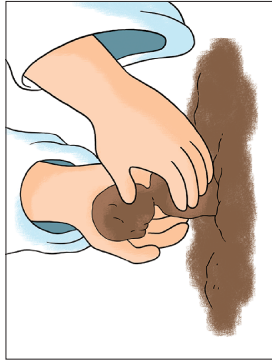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인물 이야기”

“아빠랑~ 나랑
소곤소곤, 쓰담쓰담 성경속으로”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인물 이야기”는 매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경에 기록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함을 형성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성경과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매주 1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01 최초의 사랑,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 며칠 만에 만드셨는지 알아? 맞아, 칠일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날은 몇 번째 날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날은 여섯째 날이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주셨어. 그러자 사람이 숨을 쉬게 되었어. 생기는 호흡, 생명이야.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숨을 쉬게 된 거야. 지금 ○○이랑 엄마 아빠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우리 ○○안에 착하고 예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야. 아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했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었어. 아담은 일하지 않아도 때마다 열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 만약 ○○이가 아담처럼 에덴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면, 호랑이를 뭐라고 부르고 싶어? 강아지는? 사자는?(다양한 동물들을 물어보세요) ○○이가 지어준 이름대로 부르면 재미있겠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물들과 있는 것을 보시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어.

그래서 아담과 함께 지낼 여자를 지으셨지. 아뻏하고 엄미하고 결혼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결혼을 하고 에덴동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서 유혹했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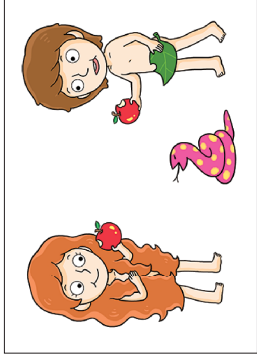
그리고 계속 말했어.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죽을지 몰라.”

뱀은 하와에게 말했어.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어버렸어.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줬지. 이를 어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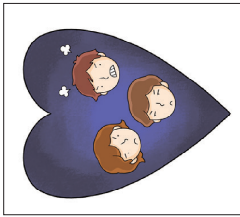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신 일을 다 알고 계셨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지 물었어.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말했어. 하와는 뱀이 자기를 유혹해서 먹었다고 했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어.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아담은 평생 일을 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하와는 아이를 낳을 고통이 클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에덴동산에게 쫓겨났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왜 쫓겨난 거지? 맞아. 욕심 때문에 쫓겨난 거야. ○○이도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어. ○○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2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사람들이 많아졌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었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사람들이 나쁜 생각만 했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한 생각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했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했지. ○이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 나쁜 생각도 해?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잔소리를 하거나 혼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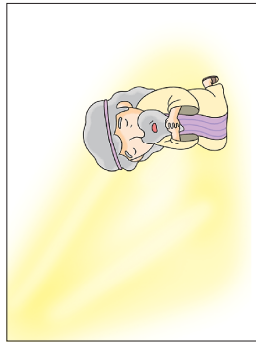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나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모두 땅 위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습이 좋다고 호뭇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이 사라지게 하신다고 하셨어.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 맞아, 바로 노아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 그래서 이 세상을 멸망할 때 노아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

“노아야,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악하다. 매일 악한 생각을 하고, 폭력적이고 나쁜 행동으로 가득하다. 내가 물로 이들을 세상과 함께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큰 배를 만들어서 그곳에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어. 또 모든 동물들 압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살아남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뭐 하나 고 물어봤을 거야.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다고 말했잖지. 그리고 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을 거야. 사람들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맞아. 다들 노아가 미쳤다고 했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랜 시간동안 배를 만들었어.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배가 다 만들어졌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

“7일 후면 내가 40일 동안 비를 보내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말한 대로 너와 가족들은 배에 들어가라. 동물들 한 쌍씩 들여보내는 것도 잊지 마라!”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직접 비를 내렸어.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 비는 40일 동안 높은 산까지 잠길 만큼 왔어. 하나님 말씀처럼 땅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다 죽었어. 얼마나 슬픈 일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거잖아. 비가 그치고 노아는 배에서 내린 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이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좋은 생각, 신한 행동을 하면 좋겠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쁜 생각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지요. ○이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주셨는데, ○이도 기쁜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해요. 용서해주세요. 이제 노아처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이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3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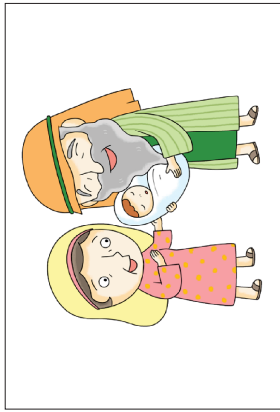
“아브람아,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기라고 하신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어. 아브람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야. 아브람이 살던 곳보다 좋지 않은 곳이었지만,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가족들이 많아졌어. 사람들이 부러워했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아내 사래의 이름을 바꿔주셨어.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래는 사라로 바뀌었지. 사람마다 이름에 뜻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었는지, 그리고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 이름에 멋진 뜻이 담겨있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뜻일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게는 자식이 없었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였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사라는 이 소

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 아빠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라처럼 웃었을 거 같아. 사라는 90세 할머니잖아. ○○이 생각은 언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라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천사가 사라에게 왜 속으로 웃느냐고 물었지. 사라는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정말 아들을 낳았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낳은 아들이잖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

태어난 거야. 아빠도 ○○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뻐했어. (아이가 태어난 순간을 이야기해주세요.) 시간이 흐르고 이삭은 무럭무럭 자랐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이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 귀하게 낳은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 아빠는 생각만 해도 슬프고 눈물이 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다음날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에게 이야기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빠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말렸어.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외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시험하신 것이었어. 다행이야.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 ○○이도 아빠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